

세계화와 國際勞動市場: 大量移民時代의 美國移民⁽¹⁾

李 澈 羲

대규모의 國際勞動移動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통해 일어났던 세계경제통합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1820년 이후 100년 동안 약 5500만의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였고, 그 가운데 대다수가 미국을 목적지로 선택하였다. 이 논문은 식민지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의 美國移民을 개관하고, 移民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형태의 변동은 이민 배출국과 흡수국의 경제적 격차, 이주비용의 조달능력, 인구변화, 이전 시기의 이민의 영향,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재난, 이민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大量移民은 배출국의 경우 노동공급의 감소를 통해 실질임금을 높이는 역할을 한 반면 흡수국에서는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빼앗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대량이민의 시대 동안 신·구대륙 간의 실질임금격차는 이민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감소하였다. 다른 한편 이민은 배출국의 소득불평등도를 낮춘 반면 흡수국의 소득불평등도를 높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비롯한 신대륙의 이민 흡수국들에서는 이민이 가져온 노동시장충격과 기타 타민족과의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 反移民의 정서가 깊어지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이민의 문호를 닫아버리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은 끝으로 대량이민시대의 경험이 오늘날의 국제인구이동과 세계화의 과정에 대해 던져주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1. 머리말

20세기 말을 통해 진행되어 온 세계化(globalization)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할 때 주로 거론되는 것은 상품 및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져온 결과들이다. 미국의 경우도 무역의 확대와 국제자본이동의 증가가 국내경제, 특히 기업조직, 고용, 임금격차 등에 미친 효과에 관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반면 자본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문헌의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는 상품 및 자본시장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로 말미암아 국제적 노동이동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대 이민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1) 이 연구는 한국무역협회와 2003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다.

과소평가하기는 힘들다. 특히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통해 일어났던 세계화의 과정에서 국제적인 노동이동의 엄청난 확대는 세계경제통합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1820년 이후 20세기 초까지 약 5500만의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했으며, 그 가운데 대다수가 미국을 목적으로 택하였다. 특히 20세기의 첫 20년 동안에는 연평균 100만의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전무후무한 大量移民時代의 정점을 이루었다.

1920년대를 통한 미국 이민규제의 강화 이후 대량이민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전체 노동력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의 구성은 유럽인에서 중남미와 아시아인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고, 그 성격에 있어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초청이민, 정치적인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난민의 이민, 미국의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부문으로의 취업이민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민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 불법이민 문제는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이고, 이민법 개정문제는 각 선거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반이민정서는 지난 테러사태 이후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한편 이민 노동은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노동공급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민의 부작용으로 중남미와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심각한 고급인력 유출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민이 제도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이민의 유인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커서 이주의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은 이민의 비용을 낮추고 있다. 특히 여행, 유학, 파견근무 등을 통한 임시적인 인적이동은 영구적인 이민의 주요 매개경로가 되고 있다. 이민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한 국가가 이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이제는 소득이 높아져서 이민의 유인이 없어진 반면,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의 저소득 국가들은 이민배출의 유인과 능력을 함께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후발산업국들이 소득성장과 함께 이민흡수의 여건을 갖추게 되어 저개발국에서 신흥산업국으로의 이민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구소련의 경제적 붕괴, 국지적인 전쟁과 재난도 새로운 국제적 인구이동 증가의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도적인 장벽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향후 국제적인 이민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제적인 노동이동이 이민 배출국과 유입국의 경제에 미친 효과를 미국의 역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대륙 정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민자의 수, 이민의

형태, 이민자의 성격 등을 개관하고, 이와 같은 이민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는 유럽과 미국의 인구 및 경제적 변화, 교통통신을 비롯한 기술의 변화, 그리고 반이민운동과 이민법 제정과 같은 정치적·제도적 변화 등의 요인들이 고려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민이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인구, 경제성장,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가 고려될 것이다. 아울러 이민이 배출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역시 인구, 경제성장, 노동시장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역사적 사례가 우리 나라의 이민 노동자 문제 대해 제공해 주는 시사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2. 19世紀 以前의 國際勞動市場

2.1. 白人債務奴隸(Indentured Servants)의 流入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의 지리적 탐험의 결과로 유럽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북미대륙에는 1607년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Jamestown)에 백인들의 첫 영구정착지가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업적인 이민이 시작되었다. 중남미에서와 같이 귀금속을 발견하고자 했던 초기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남동부 지역이 담배의 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담배재식농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식민지가 발전하게 되었다.

17세기 미국 식민지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수급이었다. 낮은 인구-토지 비율로 인해 신대륙의 노동생산성 및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따라서 구대륙의 노동자들은 이민의 유인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대서양을 건너는 데만 미숙련 노동자의 수년치 임금이 소요될 만큼 이주와 정착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신·구대륙 간 노동의 이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적자본에 기초하여 이주자금을 대여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된 형태의 금융기관도 존재하지 않았다.

식민지 정착 초기에는 特權持株會社(joint-stock company)들이 유럽본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운송비용과 첫해의 정착비용을 지급한 후 그 대신 회사를 위해 몇 년 동안 일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버지니아 회사(Virginia Company)는 자사가 고용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년의 계약기간 동안 반노예적인 상태에서 집단적인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인력수급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심각한 유인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주자들은 고전적인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지니게 되었고 수많은 피고용자들을 감독하는 데는 높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처음에는 강압적인 통제와 가혹한 처벌을

통해 노동통제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회사는 그 정책을 전환하여 1620년경까지는 개별 이주자에게 토지와 주택을 분양하고 이주자들의 배우자가 될 여성들을 데려왔으며 보다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건설하였다[Morgan(1975), Diamond(196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현한 자영농장주들은 담배 재배의 확대와 함께 심각한 일손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은 결국 유럽으로부터 일손을 공급받기 위해 債務奴隸制度(Indentured Servitude)를 도입하게 되었다. 1618년에는 100명의 빈곤한 아동들이 도제로서 버지니아에 도착하여 채무노예의 효시가 되었고, 1620년에는 100명의 채무노예가 도착하여 농장주들에게 분양되었다. 이후 채무노예는 18세기 초까지 백인이민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Smith(1947)에 따르면 식민지시대 백인이민의 절반 내지 삼분의 이는 채무로 미국에 들어왔다. Craven(1971)은 17세기 버지니아 주의 거주자 가운데 75%가 채무노예출신이었다고 추산하였다.

채무노예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주비용을 선불로 지급 받고 이를 몇 년 동안의 의무노동을 통해 갚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운송비용과 자본시장의 부재를 극복하고 신·구대륙 간 노동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채무노예시장은 영국 등 구대륙과 신대륙의 노동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신대륙에서는 선박을 보유한 상인이 신대륙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채무노예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주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계약을 통해 상인은 이주자의 이민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이주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노동이용권을 양도하였다. 상인은 채무노예 희망자들을 신대륙으로 수송하고 이들의 채무노동계약을 농장주들에게 판매하였다. 상인들은 대부분 판매대금 대신 받은 담배를 구대륙으로 수입하여 수입을 올렸고 농장주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채무노예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장을 운영하였다.

채무노예제도의 기원은 17세기 당시 영국 농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노동의 형태였던 農業雇傭下人(Servants in Husbandry)으로 볼 수 있다. 농업고용하인은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들이 다른 농업가구에 고용되어 그 가구주의 감독 하에 일을 하고 임금을 받던 제도로서 당시 농촌 임노동자의 삼분의 일 내지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고용노동의 형태였다[Laslett(1971), Kussmaul(1981)].⁽²⁾ 채무노예제도는 국제적인 노동이동을 수반했

(2) Kussmaul(1971)에 따르면 농업고용하인제도는 전근대시대 영국농업 및 농촌가구의 성격과 잘 부합되어 크게 융성할 수 있었다. 먼저 영국농업은 계절성이 비교적 작아서 연중계약이 유리했고 농장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수단이 미흡하여 상주노동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농장들의 존재와 핵가족, 높은 사망률, 높은 결혼연령 등에서 비롯되는 노동수급의 불균형은 가구 간 노동이동을 필요로 하였다. 이 고용제도는 영국 전근대 사회의

기 때문에 영국내의 하인제도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운송비용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영국 농업고용하인의 계약기간이 1년 내지 2년이었던데 반해 채무노예제도는 수년의 장기계약을 특징으로 하였다. 둘째, 채무노예의 경우 한꺼번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도망 등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계약액수가 컸던 만큼 채무노예계약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채무노예제도는 동시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구의 고용형태가 새로운 필요에 맞게 변형된 것이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의 조건에서 느끼는 거부감이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농장주가 대체로 소수의 채무노예를 보유했으며 따라서 이 제도는 노동의 감독비용 측면에서 과거의 집단농업에 비해 효율적인 것이었다.

백인채무노예시장의 성격은 채무노예계약서의 표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Galenson (1981)의 연구를 통해 잘 드러난다. 채무노예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남성이었으며, 직업구성으로 보아 당시 영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집단이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17세기에는 23%였던 여성의 비율이 18세기에 들어오면서 10%로 감소했으며 숙련공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관찰된다. 채무노예시장의 성격은 完全競爭에 가까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배를 소유한 상인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거의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인 진입장벽이 낮았고 법적인 진입의 제약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식민지 상품의 수입상에게 있어서는 채무노예의 수송의 기회비용이 매우 작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많은 수의 상인들이 백인채무노예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으며 식민지에서의 채무노예가격은 채무노예운송에 소요되는 한계비용 수준에서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구대륙의 이주희망자는 많은 상인들을 상대로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얻기 위한 탐색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채무노예계약조건은 시장의 수요·공급 사정과 이주희망자의 잠재적인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었다면 채무노예계약조건은 계약기간 동안 한 채무노예가 올릴 수 있는 순수익의 현재가치와 그 채무노예가 진 채무액(이는 운송비용과 거의 같을 것이다)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운송의 한계비용을 MC , 계약기간을 n , j 에 채무노예가 생산한 가치를 NP_j , j 에 채무노예에게 들어간 비용의 가치를 W_j , 채무노예의 가격을 P 라고 한다면 완전경쟁적인 채무노예시장에서는 식 (2.1)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지리적인 이동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Laslett(1971, Chapter 1)].

$$(2.1) \quad MC = \sum_{j=1}^n \frac{NP_j - W_j}{(1+r)^j} = P$$

이론적인 예상에 따르면 상인은 식 (2.1)의 조건이 만족되도록 계약조건, 특히 계약기간 n 을 결정할 것이다. 식 (2.1)에서 운송의 限界費用(MC)을 결정하는 운송비용, 모집비용, 위험부담금과 債務奴隸費用(W)을 결정하는 임금, 解放手當(freedom dues), 생계비용 등에 있어서는 개인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채무노예의 純生産物價値(NP)는 생산성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에 따라 큰 개인차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상인들은 이주 희망자의 여러 가지 인적특성을 관찰하여 생산성의 크기를 판단한 후, 이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결정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실증적인 분석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Galenson(198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성별, 직업, 문자해독능력 등을 통해 보았을 때 더 생산성이 높았던 이주 희망자들은 평균적으로 더 짧은 계약기간을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³⁾ 다시 말해서 생산성이 높았던 이주자들은 더 빨리 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짧은 계약기간 동안만 일을 하면 되었던 것이다.⁽⁴⁾

채무노예시장의 운영은 당시의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현재에 가용한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고 따라서 현재의 정보에 기초한 差益去來(arbitrage)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장 효율성의 정의를 채무노예시장에 적용한다면, 시장이 효율적이었을 경우 계약 당시에 알려졌던 정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격은 운송비용 수준을 평균으로 한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고 계약서 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적인 특성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채무노예의 가격이 운송비용과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향해 도중 계약당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충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계약을 체결하고 배가 떠난 뒤 갑자기 식민지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3)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짧은 계약기간을 보여 준다. 이는 어린 나이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빨리 성숙하여 높은 생산성을 지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성 간의 계약기간 차이는 주로 15-17세에 나타나고 18-20세에는 사라진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식민지의 불균형한 성비 때문에 여성의 가치가 더 높았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계약기간은 목적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영국령 서인도제도로 향했던 채무노예들은 미국본토로 이주한 채무노예들에 비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계약기간이 짧았다. 서인도제도의 주산물인 사탕이 미국남부의 담배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과 미국 본토에 비해 열악한 서인도제도의 노동여건, 생활환경, 해방 후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축기술이 있는 숙련공들의 가격을 높였을 것이다.

채무노예시장에 대한 이상의 경제학적 분석은 과거의 국제노동시장이 오늘날과는 다르게 관습이나 믿음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반론의 제기한다. 즉 과거의 경제주체들도 현대인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적 동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시장은 주어진 기술적인 여건 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채무노예시장이 전근대적인 것이었으며 이들은 강제노동을 통해 착취되었다는 전통적인 해석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경쟁적이었던 만큼 채무노예들이 근대경제학적인 의미의 착취를 당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이다. 채무노예제도는 당면한 경제적인 필요와 기술적인 제약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매우 높은 이민비용과 적절한 자본시장의 부재 하에서 효율적인 국제노동배분을 달성하는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채무노예제도를 통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대서양을 건너와 낮은 환경에서 여러 해 동안 다른 주인을 위해 일을 해야 했던 이민의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 두 달 동안의 항해는 좁고 불결하며 통풍이 잘 되지 않은 선실에서의 생활과 악천후로 인한 해난사고, 식량부족, 질병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도착 후의 첫 한 해는 면역력을 지니지 못한 신대륙의 질병으로 인해 이민자들은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채무노예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계약만료에 따른 해방과 함께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왜 이들이 이민에 수반된 위험을 감내했는지를 말해준다. Menard(1973)의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중반까지 대다수의 해방된 채무노예들은 매우 빠르게 토지를 획득하여 자영농장주가 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노예를 보유한 대농장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해방채무노예들의 식민지 사회에서의 사회정치적인 참여도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이 되면서 식민지의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백인채무노예의 사회경제적 기회는 줄어들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계층의 분해와 함께 대농장이 성장하면서 과거에는 함께 살고 일하던 농장주와 채무노예의 긴밀한 관계는 사라지게 되고, 채무노예와 해방노예들은 사회의 하층민을 형성하게 되었다(Carr and Menard(1979)).

2.2. 黑人奴隸의 流入과 新大陸 勞動力構成의 變化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신대륙으로의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15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무역은 18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1,0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신대륙으로 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은 신대륙 최대의 노예수입국으로 전체 수입노예의 41%를 차지했으며, 카리브해 연안의 영국 및 프랑스 식민지와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가 47%의 노예를 수입하였다. 미국은 1808년 노예수입이 금지되기까지 약 66만 명의

노예가 수입되어 전체 신대륙 노예수입의 약 7%를 차지하였다. 신대륙으로의 노예제 확대는 열대 및 아열대성 商業作物(staple crop)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탕, 쌀, 면화 등의 작물은 수익성이 높은 반면 열악한 조건에서의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노동을 투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⁵⁾

미국의 경우 다른 노예수입국들과는 달리 낮은 사망률과 높은 출산율에 기인한 인구의 자연증가가 노예인구증가의 주요 원천이었다. 1850년 노예의 기대수명은 36세로 백인에 비해 불과 3년 짧았으며 도시 거주 백인이나 유럽대륙 거주자들에 비해서 더 높은 기대수명을 누리고 있었다. 1830년 현재 49세까지 생존한 여성노예는 평균적으로 9.24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결과 신대륙 노예수입의 7%를 차지했던 미국은 1825년까지는 신대륙 전체 노예의 36%를 보유하게 된 반면 노예수입의 41%를 차지했던 브라질은 전체 노예의 31%가 거주하는 제2위의 노예보유국이 되었다. 1860년 미국 남부의 노예인구는 380만 명으로 이 지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 흑인노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민노동력에 있어서 백인채무노예는 흑인노예에 의해 대체되었다. 흑인노예에 의한 백인채무노예의 대체 시기는 애초에 이민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일수록 빨랐다. 백인채무노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던 서인도제도의 경우, 전체노동력에서 흑인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세기 중반에 이미 25%에 달했고, 이것이 1700년경에는 삼분의 이, 18세기 중엽에는 90%로 증가하였다. 미국 남부의 체사피크만 식민지도 18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 흑인노예가 전체노동력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 이민노동의 중요성이 낮았던 중부 식민지와 뉴잉글랜드는 흑인노예의 비중이 줄곧 낮게 머물러 있었다. 흑인노예에 의한 백인채무노예의 대체는 먼저 미속련 직종에서 이루어졌고, 본국출생 흑인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기능훈련이 가능해지면서 숙련직종에서의 대체가 시작되었다. 대규모의 농장들은 가장 먼저 흑인노예를 도입한 선구자들이었다.⁽⁶⁾

17세기 후반 이후 흑인노예에 의한 백인채무노예의 대체는 두 형태의 이민노동을 사용

(5) 미국 노예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탕생산에 투입된 노예의 비중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사탕생산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노예 노동력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적이 없었으며, 19세기 초반까지 담배, 쌀, 인디고 등의 생산이 노예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면화는 이때까지 단지 11%의 노예노동력을 차지하였으나 1850년까지 64%의 노예노동력이 면화생산에 종사하게 되었다[Fogel(1989)].

(6) 대농장주는 흑인노예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거주지가 농장과 분리되어 있었고 작업감독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 사용의 심리적인 부담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는 데 드는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Galenson(1981)의 모형에 따르면 더 많은 백인채무노예를 신대륙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집비용이 소요되고 이 주희망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흑인노예의 경우 미국이 세계 노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으므로 수요곡선이 세계시장가격 수준에서 수평의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농장경영의 확산에 따른 이민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전체 노동력 가운데 흑인노예의 비중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더욱이 영국에서의 소득증가와 미국에서의 해방채무노예들의 경제적 기회 감소로 인해 백인채무노예의 공급이 감소한 것도 흑인노예비중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Menard(1977)). 특히 1660-1680년 사이에는 사망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흑인노예가격이 크게 떨어져 흑인노예에 의한 채무노예의 대체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Galenson(1991)).

아프리카 노예수송은 17세기와 18세기의 가장 중요한 무역활동의 하나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나 영국의 Royal African Company와 같이 왕실로부터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特權持株會社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밀수의 성행으로 이들 회사들이 실제로 신대륙에서의 독점적인 판매자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노예무역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신대륙까지 살아서 운송되는 노예 일인당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장과 계약을 맺고 선박을 임대했다. 이는 수송 도중의 노예사망률을 최소화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유동성문제를 줄이기 위해 많은 경우 수송된 노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노예무역회사들은 아프리카 현지에 직원을 상주시켜 이들로 하여금 노예를 조달하게 하거나, 노예선 선장이 원주민들과의 직접교섭을 통해 노예를 확보하는 방법을 통하여 노예를 공급하였다.⁽⁷⁾

대서양 노예무역에 대한 근래의 연구들에 따르면 무역업자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매우 합리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수송된 노예의 수와 인적특성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변화하였다. 선장들은 항해에 충분한 식량을 준비하고, 전쟁 중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형선박이나 무장된 대형선박을 이용하였으며, 전염병이나 허리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절을 택해 항해하는 등 수송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신대륙에서의 노예수요변화에 따라 수송해오는 노예의 연령 및 성별구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다(Eltis and Engerman(1993)).

(7) 대서양 노예무역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아프리카에는 전쟁포로나 채무관계를 통해 공급되는 노예들이 존재하였다. 유럽의 노예무역상이 오기 이전부터 아프리카내의 노예상인은 국내 노예들을 중근동지역을 위시한 외부의 노예상인들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Galenson(1986)]. 노예수송선의 항해 중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서로의 질병에 대해 면역을 지니지 못한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조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⁸⁾

3. 大量移民의 性格

3.1. 自由移民 概觀

18세기 후반을 통해 채무노예제도는 거의 사라지고 백인들의 이민은 自由移民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자유이민으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유럽의 소득이 증가하고 대서양 운송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다수의 이주희망자들이 채무계약 없이도 이민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⁹⁾ 19세기 중엽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과 캘리포니아의 광산과 철도건설현장에 투입되었던 중국인의 경우처럼 이후에도 채무노예와 유사한 強制勞動移民이 출현하기도 하였으나 비교적 소수의 아시아 이민에게 국한되었을 뿐이다.⁽¹⁰⁾ 이민의 성격도 독신의 청년층 중심에서 家族移民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表 1>은 1820년 이후 매 10년 동안 출신지역별 미국행 이민자 수를 보여 준다. 이는 20세기 초까지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전체 미국이민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음을 보여 준다. 1820년 이후 약 6000만의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였으며 이 가운데 60%가 미국을 목적지로 선택하였다.⁽¹¹⁾ 이민의 수는 20세기 초까지 계속 늘어나 1846-1875년 사이에는 연평균 30만, 1875-1900년 사이에는 연평균 60만 이상, 1900-1920년 사이에는 연평균 100만 이상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유입된 것으로 집계된다[Hatton and Williamson(1998)].⁽¹²⁾

(8) 이 증거로는 백인 선원들의 항해 중 사망률이 아프리카인들 못지않게 높았다는 것과, 선박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적 접촉에 의한 전염병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서) 사망률이 높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Galenson(1986, Chapter 2)].

(9) 런던에서 뉴욕까지의 해상운임은 1730년에서 1830년 사이 사분의 일 수준으로 떨어졌다 [Galenson(1984)].

(10) 이 제도는 인력브로커가 이민자의 이주비용을 지불하고 채무가 청산될 때까지 이민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Cloud and Galenson(1987)을 참고하라.

(11) 18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당수의 이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로 이주하였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캐나다로의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 영연방 국가들로는 적지만 꾸준한 영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이어졌다 [O'Rourke and Williamson(2000, chapter 7)].

(12) 총이민수에서 역이민을 제외한 순이민은 이보다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이민은 운송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서 크게 늘어나 1890년-1914년 미국 총이민의 30%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계된다. 역이민의 중요성은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이민의 경우 역이민이 50%에 달했던 데 비해 러시아,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5% 이내였다 [O'Rourke and Williamson(2000, chapter 7)].

〈表 1〉 出身地域에 따른 美國行 移民者 數, 1820-1996

시기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양주	출신지 불명	계
1820	7,690	6	387	1	1	300	8,385
1821-1830	98,797	30	11,564	16	2	33,030	143,439
1831-1840	495,681	55	33,424	54	9	69,902	599,125
1841-1850	1,597,442	141	62,469	55	29	53,115	1,713,251
1851-1860	2,452,577	41,538	74,720	210	158	29,011	2,598,214
1861-1870	2,065,141	64,759	166,607	312	214	17,791	2,314,824
1871-1880	2,271,925	124,160	404,044	358	10,914	790	2,812,191
1881-1890	4,735,484	69,942	426,967	857	12,574	789	5,246,613
1891-1900	3,555,352	74,862	38,972	350	3,965	14,063	3,687,564
1901-1910	8,056,040	323,543	361,888	7,368	13,024	33,523	8,795,386
1911-1920	4,321,887	247,236	1,143,671	8,443	13,427	1,147	5,735,811
1921-1930	2,463,194	112,059	1,516,716	6,286	8,726	228	4,107,209
1931-1940	347,566	16,595	160,037	1,750	2,483	0	528,431
1941-1950	621,147	37,028	354,804	7,367	14,551	142	1,035,039
1951-1960	1,325,727	153,249	996,944	14,092	12,976	12,491	2,515,479
1961-1970	1,123,492	427,642	1,716,374	28,954	25,122	93	3,321,677
1971-1980	800,368	1,588,178	1,982,735	80,779	41,242	12	4,493,314
1981-1990	761,550	2,738,157	3,615,225	176,893	45,205	1,032	7,338,062
1990-1996	916,733	1,875,391	3,119,506	198,068	36,326	189	6,146,213
계 1820-1996	38,017,793	7,894,571	16,187,054	532,213	240,948	267,648	63,140,227
총 이민자수에 대한 백분율	60.2	12.5	25.6	0.84	0.38	0.42	

資料: Brownstone and Franck(2001, Table 1-3).

이 기간 동안 이민 배출국과 이민의 성격은 계속 변화하였다. 1840년경까지 미국이민은 주로 영국출신이었고 이민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841년에서 남북전쟁 전까지는 유럽의 재난을 피해 온 아일랜드와 독일 이민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일랜드인들은 1845-46년의 감자기근 이후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854년까지 연평균 10만이 미국에 입국하였다. 1848년의 독일혁명 이후에는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독일인들의 이민이 급증하였다. 19세기 중반에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이 이민 대역에 가세했다. 19세기 말까지 주로 서부 및 북부유럽으로부터 유입된 이민을 이 이후의 시기와 구분하여 舊移民(Old Migration)으로 지칭한다.

19세기 말 이후부터는 이민자들의 출신지역이 이탈리아, 러시아, 폴란드, 그리스 등 남부 및 동부유럽으로 바뀌게 된다. 1880년대부터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

유럽국가들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었으며 1890년대 이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러시아, 폴란드 등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들이 대량이민에 참여하였다. 이민이 정점에 달했던 1900-1914년 사이에는 연간 15만의 러시아인, 20만의 이탈리아인, 20만의 중부유럽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 시기의 이민은 출신국가, 이민의 규모, 이민의 성격 등에 있어서 그 이전 시기와 구분되므로 흔히 新移民(New Migration)이라고 부른다. 1920년대를 통해서는 유럽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 보호주의의 부활, 노동조합의 압력 등이 작용하여 일련의 移民制限法이 제정되고 의회에서 통과된다. 이로써 자유이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민의 규모도 크게 감소하여 196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기 전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3.2. 移民의 패턴과 그 決定要因

한 개인이나 가족이 이민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되며, 이들은 대량이민시대의 이주 패턴을 잘 설명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주의 결정요인은 출발 및 도착 국가 간의 經濟的 格差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 볼 때 임금격차에 의해 표출되지만 더 넓게 본다면 저렴한 토지, 사회적 평등성, 종교적·시민적 자유 등 광의의 경제적 기회를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광활한 미개척지의 존재는 토지가 단지 경제적인 자원이 아닌 사회적인 독립과 자유의 상징이던 시대에 있어서 매우 강한 유인요인이었다. 또한 봉건적인 사회질서를 경험하지 않았던 신대륙이 갖는 높은 사회적 계층상승의 가능성 역시 중요한 매력으로 작용했다.

이민 배출국의 産業化와 都市化는 이민에 대해 두 가지의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도시인구는 농촌인구에 비해 지리적인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화의 진전은 이동성이 높은 인구 비중의 증가를 통해 이민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산업화를 동반한 도시의 발달은 인구압력에 직면한 농촌인구를 흡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해외이민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민 배출국의 人口變化도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이전 시기의 인구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이민의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세대의 상대적인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인구증가는 임금의 저하와 토지의 부족을 가져와 간접적으로 이민을 증가시키기도 한다(Easterlin(1961)). 이전 시기 이민자의 수도 이민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이민 희망지의 사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민비용의 조달이 쉽지 않은 시기였던 만큼 먼저 이민을 간 가족이나 친지의 정보제공이나 송금은 이민을 크게 용이하게 해 주는 요소였다.⁽¹³⁾ 따라서 어떤 시기의 이민

(13) O'Grada and O'Rourke(1997)의 연구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경우 빈곤의 몫이 국민자들의 이민을 가로막은 중요한 장애였다. 배출국의 임금상승 자체보다 앞서간 이민자가 보내준 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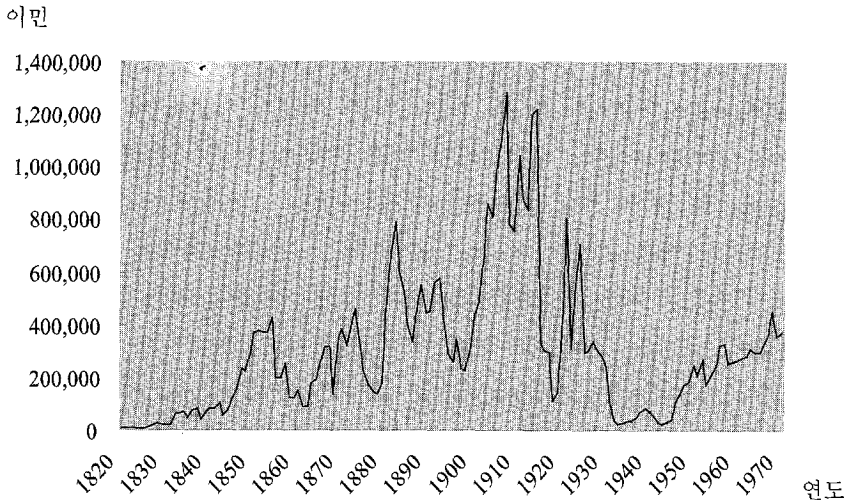
증가는 다음 시기의 이민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에 종교 혹은 민족과 관련된 박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은 갑작스러운 이민의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Hatton and Williamson(1998)의 실증적 분석은 여러 국가가 경험한 장·단기적인 이민율의 변화가 위에 지적한 이민의 결정요인에 의해 비교적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¹⁴⁾ 장기적으로 볼 때 각 이민 배출국은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Y자 모양의 생애주기적인 이민율 변화형태를 보여 준다. 전근대시기에는 이민가능지역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이민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낮은 이민율을 보여 준다. 근대에 오면서 빠른 인구성장,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해외이민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해외거주 이민자 수의 증가는 連鎖移民(chain migration)을 통한 추가적인 이민의 증가를 가져와 이민율은 가속적으로 증가한다.⁽¹⁵⁾ 뒤에서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이민의 확대는 이민 배출국과 유입국 사이의 임금격차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해외거주자 증가에 의한 연쇄 이민과 같은 다른 요인의 효과들을 압도하게 되어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 이민율은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민은 그 배출과 유입 모두에 있어서 상당한 短期的 變動性이 발견된다. <그림 1>은 미국이민유입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잘 보여 준다. 미국의 경우 1840년에서 1940년 사이 대체로 15년 내지 20년 주기의 쿠즈네츠 사이클(Kuznets Cycle)이 발견된다. 이러한 단기적인 이민의 변동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전쟁, 기아, 정치·민족·종교적 박해 등 배출국에서의 排出壓力要因(push factor)과 경기변동과 같은 유입국가의 誘因要因(pull factor)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시된 바 있다[Thomas(1973), Williamson(1974)]. 그런데 유럽의 여러 이민 배출국에서도 미국의 쿠즈네츠 사이클과 유사한 단기적인 사이클이 발견된다. 이민 배출국들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상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의 사이클이

과 승선권(prepaid ticket)이 이주비용의 해결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1년-1914년 사이 핀란드 이민의 30%, 1880년대 스웨덴 이민의 50%, 1870년대 노르웨이 이민의 40%가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 승선권을 이용하여 이민을 떠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Kero(1991), Hvidt(1975)].

- (14) 이민율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이민배출국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가 이민을 갔는지를 보여 준다. 임금격차의 지표인 모국 임금과 도착지 임금의 비율은 이민율에 강한 음의 효과를 보여주며, 20년 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상당 기간 동안 이민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이민자의 수는 이민율에 매우 강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농업인구비중에 의해 대표되는 산업화 및 도시화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노동의 이동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Massey(1988)]. 해외이민은 점차 도시로의 이주의 중요한 대안이 되었다. 도시생활이 초래한 토지에 대한 애착이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의 단절은 이민의 결정을 용이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資料: U. S. Census Bureau(1975, Series C89).

〈그림 1〉 美國의 年度別 總移民者 數, 1820-1970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미국에 의해 대표되는 이민 흡수국의 경기변동에 의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단기적인 이민변동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Hatton and Williamson(1998)].⁽¹⁶⁾

이민의 단기적인 변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은 이민의 결정이 生涯所得의 비교에 기초한 장기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민의 시기를 늦추는 데 따르는 機會費用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민의 결정 자체는 장기적인 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민의 시기 결정은 대상국의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 흡수국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이민의 시기와 더불어 이민국의 선택, 예컨대 미국으로 가는가 아니면 캐나다로 가는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민의 결정요인은 이민 배출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세기 중반 미국 이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경제적 재난을 피하기 위한 이민의 대표적인 경우를 보여 준다. 1845-52년 사이 감자 흉작에 의한 기근은 800만 인구 가운데 100만을 사망하게 하였고 100만 이상의 인구가 하여금 기아를 피해 해외이민에 나서

(16) 1850년대 말, 1870년대, 1890년대의 불황, 1930년대의 대공황,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이민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840년대와 1850년대 초의 이민증가는 아일랜드의 감자기근, 독일의 정치적인 혁명과 같은 배출국의 재난에 힘입은 바 크다.

도록 만들었다. 재난에 의한 이민이었다 하더라도 이민의 결정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발견된다. 이민자들의 특성을 보면 연령으로 보아 15-34세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다수가 미혼이었으며 농촌출신이 많았다. 기근의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가해진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하층민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이민자의 직업적 구성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단순육체노동자, 여성의 경우 가정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19세기 중반을 통해 매우 높았던 아일랜드의 이민율은 아일랜드의 상대적 임금의 증가와 인구압력의 감소에 의해 19세기 후반을 통해 감소하였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 이민은 만성적인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이민의 사례를 제공해 준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이민이 비교적 늦게 시작되어 북서유럽 국가들의 이민이 감소하기 시작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통해서 이민의 유출이 계속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人口轉移(demographic transition) 및 경제발전의 지체와 같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는 19세기 말에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경제의 심각한 실패로 인해 이민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⁷⁾ 과거의 문헌들은 남유럽의 경우 남미의 노동수요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민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탄력적인 노동공급이 남미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으나[Lewis(1978)] 근래의 연구는 남유럽의 이민행태가 북서유럽과 달랐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Hatton and Williamson(1998)].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에 있어서 이민의 이유는 재난이나 경제적인 궁핍이 아니었고, 토지가 부족에 따라 후손의 사회적·경제적 기회가 악화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이민이었다. 초기의 이주자들은 농촌에서 상당한 토지와 재산을 보유한 부유층들이었다. 토지의 제약으로 자녀에 대한 농지의 상속이 어려워질 경우 이민을 제외한 대안은 도시 지주였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도시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대대로 유지해온 토지소유의 가치와 농촌사회의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는 데 유리한 선택이었다. 초기의 이민자들은 이주 직후 미국의 중서부에 정착하여 모국의 같은 마을 사람들과 새로운 커뮤니티를 건설하고 자영농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였다. 선구적인 이민자들의 서신과 송금, 그리고 이민자 네트워크의 확대는 추가적인 連鎖移民을 가져와 이민을 급증하게 된다. 이민의 증가는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와 본국에서의 임금의 상승과 지가의 하락을 낳았으며 이는 하층민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860년대 이후부터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미국이민의 대열에 합류

(17) 1890년대 이후 영국이민이 증가한 것도 이 시기 이후 영국의 상대적인 경제적 쇠퇴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O'Rourke and Williamson(2000, chapter 7)).

하게 된다[Gjerde(1985)].

4. 大量移民의 效果와 移民規制

4.1. 移民의 經濟的 效果

이민의 경제적 효과는 이민 배출국과 흡수국에 대해 상이하며, 계층에 따라 이해와 손실이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이민은 생산요소의 국제적인 재배분을 의미하는 만큼, 노동 이동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보다 풍부해지게 된 요소의 소유자에게는 손실을, 보다 희소하게 된 요소의 소유자에게는 이득을 가져다 준다. 예컨대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이민 배출국에 남아 있는 노동은 임금상승의 혜택을 입는 반면 이민흡수국의 노동은 임금하락을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이민의 증가는 국제적인 임금의 수렴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반면 풍부한 노동공급의 혜택을 입는 고용주들은 노동자들과는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노동의 이탈은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를 통해 지가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가와 지주는 한 사회의 상류층을 점유하므로 이들이 이민의 결과 상대적 손해를 입게 되는 이민 배출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의 감소가 나타나는 반면 이민흡수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민이 이민 배출국에 미치는 經濟的인 效果에 대해서는 상반된 이론적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비판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민은 한 사회의 가장 능력 있는 인적자원을 유출시키고 인구감소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및 잠재적 수요의 상실을 가져와 경제발전을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¹⁸⁾ 반면 新古典派 經濟學의 예측에 따르면 노동력의 유출은 수확체감의 법칙을 통해 실질임금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대량이민 시대 아일랜드의 경험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예상과 잘 부합된다. 이민은 아일랜드의 요소구성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1851년-1913년 사이 농촌인구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260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 결과 1855년-1913년 동안 아일랜드의 1인당 소득의 증가율(1.6%)은 국민소득증가율(0.7%)보다 훨씬 높았다. 실질임금은 빠르게 상승하여 미국이나 영국과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실질임금의 상승이 모두 이민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이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 특히 기술의 변화나 자본

(18) 동시대인들은 대체로 이민이 산업화의 부진, 실업 등 경제적인 실패의 결과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O'Grada(1994)]. 이민에 의한 노동력의 유출은 아일랜드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이루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Mokyr(1991)].

의 이동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변화한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세기의 대부분을 통해 자본은 노동과 같은 방향으로, 즉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구대륙의 상대적인 노동생산성을 낮추어 이민으로 인한 실질임금 증가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했을 가능성이 있다. ‘計算 可能한 一般均衡(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模型’을 도입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이 다른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아일랜드의 이민은 19세기 후반 실질임금 상승의 40-50%, 영국이나 미국과의 임금격차 감소의 20-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oyer, Hatton, and Williamson(1994)].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개선의 이면에는 지주와 자본가들의 손실이 발견된다. 노동력의 감소에 따라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지대는 33-55%, 자본수익률은 28-45%가 감소하였다.⁽¹⁹⁾

이민이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는 여러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이민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미친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민의 효과에 관한 가설 가운데 하나인 “移住勞動者 效果假說(Guestworker Hypothesis)”에 따르면 이민노동자의 존재는 호황기에 탄력적으로 추가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고 불황기에는 역이민을 통해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노동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근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민은 호황기의 노동공급 증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불황기에는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경제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아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1870년-1913년 사이 미국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도 이주노동자효과가 그다지 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이민노동자의 수는 미국 내 고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노동자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실업률은 실제의 실업률보다는 낮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이민노동자의 직업과 이들이 정착한 지역을 보건대 이민노동자의 지역·부문별 배분이 노동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민노동자는 주로 북동부 지역에서 느리게 성장하던 직종의 미숙련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향을 보였다.⁽²⁰⁾

이민노동자가 기존의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내모는 효과가 있는가의 여부는 오늘날까

(19) 스웨덴은 아일랜드와는 사뭇 다른 경험을 보여 준다. O'Rourke and Williamson(1995)의 C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민이 실질임금의 증가나 영국과의 임금격차 축소에 미친 영향은 작았다.

(20) 이민의 효과와 관련된 논점 가운데 하나는 이민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가 대체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종류의 노동이 대체요소라면 이민은 내국인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높여 오히려 임금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Foreman-Peck(1992)이 1890년 미국제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이민노동과 내국인노동은 대체요소가 아니었다.

지도 이민의 규제를 둘러싼 정책적인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유입과 고용 간의 단순상관관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진정한 이민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북동부의 대도시들은 이민의 유입이 많았지만 1880-1910년 사이 산업화의 심화와 함께 노동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기존 노동자의 유출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고용의 성장률에 의해 나타나는 노동수요의 변화와 그 밖의 지역적 특성들을 통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했을 경우 100명의 이민자 유입은 40명의 기존 노동자 유출을 초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은 특정한 노동자집단의 고용기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민노동의 증가는 미국 북동부 지역 면직산업의 고용패턴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19세기 초반을 통해서는 면직공장의 직공자리가 주로 농촌출신 백인 미혼여성들의 결혼 전까지의 일시적인 직업으로 여겨졌고 사회적인 위신도 높았다(Goldin and Sokoloff (1982)). 그러나 아일랜드 이민이 들어오면서 면직공의 임금은 낮아지고 노동강도는 강해졌으며 사회적인 위신 낮아지게 되었고, 농촌미혼여성들은 더 이상 이 부문으로 진출하지 않게 되었다. 이민노동자의 유입은 또한 남부 흑인들의 북부노동시장 이주를 저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남부와 북부의 매우 큰 임금격차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까지 매우 소수의 남부 흑인들이 북부로 이주하였다.⁽²¹⁾ Collins(1997)의 연구에 따르면 백인의 이민율이 높았던 주 혹은 도시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흑인의 이주가 저조하였다. 이 분석은 백인이민이 없었다면 1910년 이전의 흑인이주가 50%나 더 컸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민이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노동수요의 변화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노동수요의 변화를 적절히 통제한 연구결과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이민자의 유입이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당 정도 감소시켰음을 보여 준다. 도시별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의 결과는 이민자의 비율이 1% 증가하면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이 1.5%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Goldin(1994)). 한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이민에 의한 노동력 1% 증가는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0.4% 내지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atton and Williamson(1998)). 이민자 유입이 누적적으로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는 상

(21) 1870년에서 1910년까지 불과 54만 명의 남부 흑인이 북부로 이주한 데 비해 1910년 이후의 40년 동안에는 350만 명이 이주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이후 이민법에 의한 이민자의 감소가 가져온 효과 이외에 남부 흑인들의 교육의 개선이 소위 대이주(The Great Migration)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Margo(1990)).

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890년 이후 입국한 이민자는 1910년 노동력의 11.8% 차지했으며, 1870년 이후 입국한 이민자는 1910년 노동력의 무려 27.3%를 차지했다. 따라서 19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890년 이후 이민이 없었다면 임금은 4.7-5.9% 더 높았을 것이고, 1870년 이후 이민이 없었다면 임금은 10.9-13.7%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의 국제이동은 배출국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흡수국의 임금을 하락시켜 전반적으로 국제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증적인 분석에 따르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통해 전반적으로는 신규대륙의 12개국 간 임금격차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는 대부분 신대륙과 구대륙의 임금격차의 감소에 의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임금격차의 감소는 이민에 의해서 초래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자본의 이동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민의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완전한 자본의 이동성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이민의 임금격차 축소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CGE모형에 기초한 한 분석에 따르면 1870-1890년 사이 미국에서의 생산성 향상 및 자본축적에 의해 이민이 없었을 경우 영국과 미국의 임금격차가 66.7%에서 72.5%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민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의 임금격차는 44.7%로 감소하였다. 1890-1910년 사이에는 미국의 생산성 향상과 자본축적의 영향이 이민의 효과를 압도하여 영국과 미국 사이의 임금격차가 61.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만약 이민이 없었다면 임금격차가 114.9%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aylor and Williamson(1997)].⁽²²⁾

마지막으로 이민의 증가는 흡수국의 경우 미숙련노동 임금을 낮추는 한편 노동력 증가를 통해 지대 및 이윤의 증가를 가져와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반면 배출국의 경우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지대와 미숙련임금의 비율 및 노동자당 GDP와 미숙련임금의 비율에 의해 측정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보면, 1870년-1913년 사이 이민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이 희소하여 실질임금이 높았던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해진 반면, 자원이 빈약하고 노동이 풍부하여 실질임금이 낮았던 국가들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관찰된다. 이와는 반대로 1921년-1938년 사이 세계화가 중단되고 이민이 크게 축소되었던 시기를 보면 실질임금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이 더 크게

(22) 이민은 노동력참가자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배출국과 흡수국의 노동력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민배출국의 경우 이민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이민흡수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민이 국민소득의 수렴에 미친 영향은 임금의 수렴에 미친 영향보다 작다.

개선된 것이 발견된다[Williamson(1997)].

4.2. 移民 以後

미국에 온 이후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역사학과 경제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미국은 ‘機會의 나라(land of opportunity)’로 불릴 만큼 구대륙에 비해 사회적인 이동성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수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통적인 믿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본국출신자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비영어권 국가출신 이민의 경우에는 언어장벽이 사회적 동화의 걸림돌이 되었고, 본국출생자에 비해 평균적인 건강상태도 나쁜 편이었다. 게다가 출신 국가에서 습득한 인적자본의 성격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인적자본의 가치 저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리함 때문에 이민자들은 본국 출신에 비해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졌고 직업상의 상승도 제약을 받았다. 여기에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결여와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은 이민자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Stephan Thernstrom의 연구는 여러 해의 인구센서스의 원사료를 연결하여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선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 북동부의 Newburyport와 Boston에 거주하던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분석하였다. Newburyport에 대한 연구[Thernstrom(1964)]는 미숙련 노동에 종사하던 이민자들의 절반이 10년 후에도 최하위 직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다소 비판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19세기 말 미국이 기회의 나라였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Boston에 대한 연구[Thernstrom(1973)]는 이보다는 복합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기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하층에서 출발하였고 신분상승에 있어서도 본국출신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사회경제적인 상향이동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민자들의 불리함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개선되었다는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준다. 이민 2세대들은 부모들에 비해 훨씬 더 성공적이었지만 토박이들에 비해 불리함은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의 경제적인 성과는 출신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이민은 사회의 최하층을 점유했고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보여준 반면, 영국인과 러시아 출신 유대인은 이민자들 가운데 가장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근래의 연구들은 보다 진보된 資料連結技法을

이용하여 과거의 연구들이 지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였다. Ferric(1999)의 연구는 1840년-1850년 사이 미국항구에 입항한 배들의 승선기록으로부터 이민자들의 명단과 인적특성을 조사하여 이들을 1850년과 1860년 인구센서스에 연결하였다. 이는 이민자들이 이주 전 직업, 이주 직후의 직업, 이주 후 10여년이 지난 다음의 직업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분석의 결과,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이동성은 기존 문헌이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도착 직후에 직업이 바뀔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1850년 센서스에서 발견된 미숙련 이민자 가운데 45%가 상위 직업으로 상향 이동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모국에서 얻은 인적자본이 이민 이후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Herscovici(1998)는 Boston에 거주하다가 다른 도시로 이주했던 이민자들은 Boston에 계속 남아있던 이민자들에 비해 더 높은 직업상의 상승을 경험했음을 밝혔다. 이는 Thernstrom(1973)의 연구와 같이 한 도시에 계속 남아있었던 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이동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근래의 연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까지의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땅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의 선택은 합리적인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4.3. 移民規制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점차 자유로운 이민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19세기 중엽 이후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대량이민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된다. 1917년 미국의회는 이민자들에 대한 文字解讀試驗(Literacy Test) 법안에 대한 대통령 윌슨의 거부권을 무효화함으로써 일련의 이민규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법안을 통과시켰다.⁽²³⁾ 이어 1921년의 緊急割當法(The Emergency Quota Act), 1924년의 移民法(The Immigration Act), 1929년의 出身國家法(The National Origins Act)이 제정되어 출신국가별로 연간 이민자 수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의 이민규제는 1965년 이민법 개정시까지 지속되었다.

이민에 대한 제한은 갑자기 나타난 것도, 또 미국에만 출현한 것도 아니었다. 이미 1880년대부터 많은 이민유입국에서 이민에 대한 제약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3) 문해시험은 1897년에 처음 고안되었으며, 미국 헌법의 짧은 문단을 읽고 쓰게 하여 비문해 남성과 그의 동반가족의 이민을 불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이후의 명시적인 이민 할당제도보다는 그 영향이 작았지만 남부 및 동부유럽으로부터의 신이민 유입을 상당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Timmer and Williamson(1998)이 고안한 이민에 대한 제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추이를 보면 1860-1880년을 기점으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등의 주요 이민유입국에서 이민정책의 제약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세기 말에 이미 장기계약노동의 이주와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1917년에 통과되었던 문자해독시험에 대한 발의가 처음 있었던 것도 1890년대였다.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이민에 대한 반감의 고조는 노동시장의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1850년대의 불황 시 대규모의 반이민운동을 경험한 바 있으며[Fogel(1989)], 1890년대에 고조된 반이민 입법운동은 이 시기의 깊은 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힘입은 바 크다[Goldin(1994)].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1890년대의 불황으로 인해 이민자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었던 것이 확인된다[Pope and Withers(1994)].

이민규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타민족에 대한 혐오나 외국인에 공포심과 같은 감정적·심리적 요인이나 이민자의 질 저하, 내국인 노동자의 피해, 불평등도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설명이 있다. 근래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Goldin(1994)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문자해독시험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은 인구구성의 변화, 이민이 가져온 노동시장 사정의 악화, 이민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이었다.⁽²⁴⁾ 1890년대의 심각한 불황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문자해독시험과 같은 이민규제의 요구를 높게 된다. 그러나 이민급증에 의한 인구구성의 변화,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변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이민제한입법의 시도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즉 1890년-1910년 사이 이민자의 급증은 이들이 주로 거주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에 우호적인 하원의원들을 배출했으며, 1890년대의 불황기에 이민에 반대하던 고용주들이 경기회복과 함께 임금이 상승하자 親移民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남부의 주들도 19세기 말까지 이민자들을 농업노동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민규제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이민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이민자의 상대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남부는 이민이 남부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북부에 비한 상대적인 인구비율 및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反移民政策으로 선회하였

(24) 각 선거구 주민의 사회경제학적인 특성과 그 선거구 출신 의원의 투표결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임금증가율이 높을수록 이민제한에 반대하는 성향이 높았다. 그리고 도시단위로 임금과 이민자의 비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이민이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크게 낮추었음을 보여 준다.

다. 1917년의 문자해독시험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의 무효화는 이러한 인구·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Timmer and Williamson(1998)의 연구는 국가별·시기별로 이민제한의 지표가 어떤 요인에 의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이민자의 수는 이민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이민자의 질은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²⁵⁾ 둘째, 임금의 성장률이나 일인당 소득에 비한 미숙련임금의 비율과 같이 노동시장의 사정과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변수들이 이민정책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²⁶⁾ 세 번째로, 다른 나라의 이민정책도 중요한 효과를 미쳤다. 특히 군소국가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도국가들의 이민정책변화는 자국의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상의 요인들이 실제의 이민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민정책의 시행이 많은 경우 상당히 오랜 정치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야 시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20세기 초를 통한 이민규제의 출현이 막연한 타민족에 대한 거부감이나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보다는 이민자의 질, 노동시장사정, 다른 나라의 이민정책 등을 고려한 정치적 대응이었음을 시사한다.

5. 맺음 말

삶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인간의 유인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해 왔으나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인구이동은 그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다. 그것은 이민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예컨대 이민 배출국과 흡수국의 경제적 격차, 이주비용의 조달능력, 인구변화, 이전 시기의 이민의 영향,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재난, 이민에 대한 규제 등의 변화 때문이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기간은 소위 大量移民(Mass Migration)의 시대로 국제적인 인구이동이 역사상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이민 확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유럽과 신대륙의 임금격차가 컸던 한편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국가들(처음에는 북서유럽, 이후에는 남부 및

(25) Foreman-Peck(1992)의 연구결과도 이민자들의 숙련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미국의 아시아 이민 제한이나 남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이민 제한의 주요요인이었음을 지적한다.

(26) Shughart, Tollison, and Kimenyi(1986)의 연구는 1900년-1982년 사이 미국에 있어서 공식적인 이민정책, 이민정책의 집행예산과 집행의 강도, 집권정당의 성향 등이 GNP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임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민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준다.

동부유럽의 국가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민의 경제적인 유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債務奴隸(indentured servants)나 아프리카 노예와 같은 비자유노동이 이민의 주류를 이루었고 대규모 자유이민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은 유럽의 하층민들이 이주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세기 중엽, 아일랜드의 감자기근이나 독일의 혁명과 같은 경제적·정치적 재난을 피하기 위한 이민의 증가가 초기 이민 확대의 중요한 계기였다. 이전 시기 이민자의 증가는 서신을 통한 정보의 전달, 송금을 통한 이주비용의 조달, 이민 이후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공 등을 통해 이민을 더욱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서유럽은 19세기 후반을 통해 신대륙과의 임금격차가 축소되어 이민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경제발전이 뒤졌던 남부 및 동부유럽이 19세기 말부터 대량이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대량이민은 배출국의 경우 노동공급의 감소를 통해 실질임금을 높이는 역할을 한 반면 흡수국에서는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빼앗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대량이민의 시대 동안 신·구대륙 간의 실질임금격차는 이민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훨씬 감소하였다. 다른 한편 이민은 배출국의 소득불평등도를 낮춘 반면 흡수국의 소득불평등도를 높였다. 미국을 비롯한 신대륙의 이민 흡수국들에서는 이민이 가져온 노동시장충격과 기타 타민족과의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 반이민의 정서가 깊어지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이민의 문호를 닫아버리기 시작하였다. 유럽이민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였던 미국은 1917년 이후 일련의 移民規制法案을 통해 이민을 국가별로 할당하여 허가하기 시작하였고 대량이민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민규제,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제인구 이동은 1945년 이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1970년 이후에는 '新大量移民(New Mass Migration)'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다시 활발해졌다. 國際移民機構(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추계에 따르면 199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20만의 인구가 자국을 떠나 이주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1990년대를 통해 연평균 90만 이상의 이민자가 유입되어 절대적인 수로는 대량이민의 절정기였던 1901-1910년(연평균 89만)의 기록을 넘어섰다[U. S. Census Bureau(2001, No. 5)].⁽²⁷⁾ 규모의 증가와 함께 근래의 이민은

(27) 1990년대의 이민자 수는 신규도착이민과 기존 거주자 가운데 신분이 변경된 이민자를 포함한다. 전체 인구 1,000명에 비교한 신규이민자의 수는 1901-1910년에 10.4였는데 비해 1990-1998년에는 3.6으로 이민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대량이민 시대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배출국과 흡수국이 크게 다양해졌으며, 영구이민, 일시적 노동이민, 난민 등 여러 가지 형태가 공존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민문제는 다시 여러 국가들의 정치, 안보,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하였다.⁽²⁸⁾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대량이민 시대의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근래의 이민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향후의 추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근래에 나타난 이민의 변화는 위에서 살펴본 이민의 결정요인에 의해 비교적 잘 설명된다.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은 세계의 정세가 평화롭고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20세기 말에 나타난 세계화의 시기에도 잘 적용된다. 이민의 배출국과 유입국이 다양해진 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들이 이민을 내보낼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것과 산유국과 신흥공업국들의 발흥과 함께 국제적인 소득격차의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예컨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저개발국에서 중동의 산유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으로의 이민 증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아울러 정치적·경제적 재난은 여전히 중요한 이민의 요인으로 이민의 패턴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소련의 붕괴와 발칸반도의 내전으로 인한 동유럽 출신 이민의 증가, 베트남 전 이후 베트남 출신의 미국이주 증가가 그 예이다.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앞으로도 특별한 제도적 변화가 없는 한 국제이민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존하는 국제임금격차를 보전대 이민의 유인이 가까운 장래에 사라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은 아직까지 국제이민의 대열에 합류하지조차 않은 상황이다. 또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 시기 이민의 증가는 連鎖移民(chain migration)을 낳는다. 여러 선진국들이 이민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가족의 재결합은 인도주의적인 압력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가족이민은 전체이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노동이민을 수용하는 경우 가족의 동행을 강력하게 규제해 온 독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세계화에 따른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은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이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²⁹⁾ 또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운송비의 저

(28) 1945년 이후의 세계인구이동의 전반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Castels and Miller(1998), 미국이민의 변화와 이에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Borjas(1999)를 참고하라.

(29) 이는 특히 고급인력의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의 투자는 많은 경우 경영자나 엔지니어의 해외파견을 동반한다. 1990년대 일본의 경우 83,000명의 전문인력이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의 투자는 투자지역 노동의 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국인 타이완, 일본,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이민의 주요

하와 정보획득의 용이성 증가, 이민자사회의 확대에 따른 네트워크의 형성, 소위 “移民事業”이라고 불리는 이민알선조직의 발전은 불법이민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경험은 현재의 이민증가가 이민흡수국의 저숙련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득불평등도를 높임으로써 반이민정서를 고양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제공해 준다. 사실 이미 1980년대 이후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反移民運動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민정책은 주요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민의 증가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소득불평등 증가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재의 연간이민자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고숙련이민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이 영향력을 얻고 있다[Borjas(1999)]. 이와 같은 반이민운동은 貿易自由化에 반대하는 반세계화운동과 맞물려 20세기 초의 경우와 같이 세계화의 경향에 중요한 장애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민의 역사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自由貿易協定(이하 FTA)의 체결은 노동의 이동에 있어서 두 가지의 상반된 방향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FTA의 체결은 이민배출국의 미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민의 유입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면이 있다. 미국이 NAFTA를 체결하면서 얻고자 한 효과 가운데 하나는 멕시코로부터의 불법이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 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1970년대까지 감소하던 미국-멕시코 소득격차가 1980년대를 통해 다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NAFTA의 체결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멕시코의 불법이민을 감소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이는 양국의 경제적인 격차가 아직까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멕시코의 빠른 인구증가로 인해 미숙련노동의 공급이 여전히 넘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건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만 NAFTA가 향후 양국 간 미숙련노동 임금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기대했던 불법이민 감소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FTA의 체결로 인한 당사국 간의 상품 및 자본의 이동 증가는 인력의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 간 인구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역사적 사례로 보건대 인구의 이동은 단순한 경제적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연관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이민이 주로 과

흡수국이 되었다[Castels and Miller(1998, chapter 6)].

거의 식민지 모국이나 주요 교역대상국에 집중되었던 데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체결은 새로운 경제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 인적인 이동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선진국의 경영자와 엔지니어가 저개발국으로 파견되는 한편 저개발국의 미숙련노동이 선진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1990년대 일본의 경우 83,000명의 전문인력이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국인 타이완, 일본,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이민의 주요 흡수국이 되었다[Castels and Miller(1998, chapter 6)].

FTA의 체결이 인구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 무역의 확대가 가져오는 노동시장효과는 인구이동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 즉 선진국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유입이 가져오는 자국 미숙련노동자의 피해는 외국인 미숙련노동자의 유입에 의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임금불평등 증가의 원인으로 주로 숙련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기술의 변화와 국제무역의 확대가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근래의 연구 결과들은 이민의 증가가 가져온 미숙련노동공급의 증가가 임금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민의 유입은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계층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반세계화의 정서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副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96

팩스: (02)886-4231

E-mail: chullee@snu.ac.kr

參 考 文 獻

- Borjas, G.(1999): *Heaven's Door: Immigration Policy and the American Economy*, Princeton.
- Boyer, G., T. Hatton, and J. Williamson(1994): "E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in Ireland, 1850-1914," in T. Hatton, and J. Williamson(eds.), *Migration and the International Labor Market, 1850-1939*, London, Routledge.
- Brownstone, David M., and Irene M. Franck(2001): *Facts about American Immigration*, H.W. Wilson.
- Carr, L.G., and R. Menard(1979): "Immigration and Opportunity: The Freedman in Early Colonial

- Maryland,” in T. Tate, and D. Ammerman(eds.), *The Chesapeake in the Seventeenth Century*, Chapel Hill, 206-242.
- Castels, S., and M. Miller(1998): *The Age of Migration*, 2nd edition, Guilford.
- Cloud, R., and D. Galenson(1987): “Chinese Immigration and Contract Labor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4**, 22-42.
- Collins, W.(1997): “When the Tide Turned: Immigration and the Delay of the Great 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7**, 607-632.
- Craven, W.F.(1971): *White, Red, and Black: The Seventeenth Century Virginian*, Charlottesville.
- Diamond, S.(1967): “Values as an Obstacle to Economic Growth: The American Colonie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7**, 561-575.
- Easterlin, R.A.(1961): “Influence on European Overseas Emigration Before World War I,”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9**, 33-51.
- Eltis, D., and S. Engerman(1993): “Fluctuations in Sex and Age Ratios in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1663-1864,” *Economic History Review*, **46**, 308-323.
- Ferrie, J.(1999): *Yankeys Now*, Oxford University Press.
- Fogel, R.(1989): *Without Consent or Contract*, Vol. 1, Norton.
- Foreman-Peck, J.S.(1992): “A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Migration, 1815-1914,” *Manchester School*, **60**, 359-376.
- Galenson, D.(1981): *White Servitude in Colonial America*, Cambridge.
- _____(1984): “The Rise and Fall of Indentured Servitude in the Americas: An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4**, 9-26.
- _____(1986): *Traders, Planters, and Slaves: Market Behaviors in Early English America*, Cambridge.
- _____(1991): “Economic Aspects of the Growth of Slavery in the Seventeenth-Century Chesapeake,” in B. Solow(ed.), *Slavery and the Rise of the Atlantic System*, 265-275.
- Gjerde, Jon(1985): *From Peasants to Farmers*, Cambridge.
- Goldin, C.(1994): “The Political Economy of Immigration Restriction in the United States, 1890-1921,” in C. Goldin and G. Libecap(eds.), *The Regulated Economy: A Historical Approach to Political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in, C., and K. Sokoloff(1982): “Women, Children,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Early Republic,”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2**, 741-774.

- Hatton, T., and J. Williamson(1998): *The Age of Mass Migration*, Oxford.
- Herscovici, Steve(1998): "Migration and Economic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8**, 927-956.
- Hvidt, K.(1975): *Flight to America*, New York, Academic Press.
- Kero, R.(1991): "Migration Traditions from Finland to North America," in R. J. Vecoli, and S. M. Sinke(eds.), *A Century of European Migration, 1830-1930*,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Kussmaul, A.(1981): *Servants in Husbandry in Early Modern England*, Cambridge.
- Laslett, P.(1971): *The World We Have Lost*, 2nd ed., London.
- Lewis, W.A.(1978): *The Evolut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rinceton.
- Margo, R.(1990): *Race and Schooling in the South, 1880-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ssey, D.S.(1988):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 383-413.
- Menard, R.(1973): "From Servants to Freeholder: Status Mobility and Property Accumulation in Seventeenth-Century Maryland," *William and Mary Quarterly*, **30**, 37-64.
- _____(1977): "From Servants to Slaves: The Transformation of the Chesapeake Labor System," *Southern Studies*, **16**, 355-390.
- Morgan, E.S.(1975): *American Slavery, American Freedom: The Ordeal of Colonial Virginia*, New York.
- Mokyr, J.(1991): "Dear Labor, Cheap Labor,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P. Higonnet, D. Landes, and H. Rosovsky(eds.), *Favorites of Fortun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O'Grada, C.(1994): *Ireland, 1780-1939: A New Economic History*, Oxford.
- O'Grada, C., and K.H. O'Rourke(1997): "Migration and Disaster Relief: Lessons from the Great Irish Famine,"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1**, 3-25.
- O'Rourke, K.H., and J. Williamson(1995): "Open Economy Forces and Late 19th Century Swedish Catch-Up: A Quantitative Accounting," *Scandinavian Economic History Review*, **43**, 287-309.
- O'Rourke, K.H., and J. Williamson(2000): *Globalization and History*, MIT.
- Pope, D., and G. Withers(1994): "Wage Effects of Immigration in Late-Nineteenth-Century Australia," in T. Hatton, and J. Williamson(eds.), *Migration and the International Labor Market, 1850-1939*, London, Routledge.
- Shughart, W., R. Tollison, and M. Kimenyi(1986): "The Political Economy of Immigration

- Restrictions,” *Yale Journal of Regulation*, **51**.
- Smith, A.E.(1947): *Colonists in Bondage: White Servitude and Convict Labor in America, 1607-1776*, Chapel Hill.
- Taylor, A., and J. Williamson(1997): “Convergence in the Age of Mass Migration,”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1**, 27-63.
- Thernstrom, S.(1964): *Poverty and Progr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1973): *The Other Bostoni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Timmer, A., and J. Williamson(1998): “Immigration Policy Prior to the Thirties: Labor Markets, Policy Interactions and Globalization Backlas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 739-771.
- Thomas, B.(1973): *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2nd ed., Cambridge.
- U. S. Census Bureau(1975):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Vol. 1, Washington, GPO.
- _____(2001):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0*, GOP.
- Williamson, J.(1974): “Migration to the New World: Long-Term Influences and Impact,”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11**, 357-390.
- _____(1997):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Past and Present,”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2**, 117-135.